

울진군 어촌·어항 개발 현황과 전망



김우현
울진군 수산과장

1. 머리말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지형 특성상 배후는 대부분 산악 지역으로 백암, 덕구온천과 불영 계곡 등 풍부한 자연 자원과 관동팔경의 망양정, 월송정 등 많은 관광 명소가 분포하고 있다.

연안은 동해안의 중심 해역으로서 한·난류가 교차되어 풍부하고 다양한 수산물의 어획과 신비의 해저 비경인 왕돌초 등이 있다.

이전에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흥계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가공 수출이 활기를 띠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대내외적인 어업 환경의 악화로 울진군의 어촌·어항은 상실감과 위기감이 팽배한 분위기이나 근자에 우리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바다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울진군 위치도

농업을 실시하고 있고 해양 바이오 벤처 단지인 경북 해양 과학 단지 조성 등 해양 생물 산업 기반 조성 및

잡는 어업 위주의 환경에서는 중·대형 어선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주변 여건의 변화와 어업인의 의식 전환 등으로 소형 어선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선 집안 및 계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3) 재정 투입 취약성

국가 재정 지원의 부족과 빈약한 지방 재정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방 어항 및 어촌 정주 어항의 완공률은 국가어항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될 뿐 아니라 부족한 예산으로 어항 기본 시설인 방파제 등 외곽 시설 위주로 이루어진 어촌 정주 어항은 어선의 안전 수용의 어려움과 배후부지 등 이용 공간 절대 부족으로 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 확보의 한계성과 개발 계획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지역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배제한 지역별 분산 투입으로 인한 줄속 개발과 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항만 및 해안 전문 인력에 의한 개발 계획 필요성
결여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지형 및 해양 특성(해안 침식 및 매물 현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계획 및 개발에 의한 단순 어항 기능 위주의 설계 및 시설 축조로 인하여 외곽시설(방파제, 방사제 등) 축조에 따른 해안 지형 변화(침식 및 매물, 특히 어촌정주어항의 대부분은 매물 현상이 심각함)에 따른 어항 기능 상실로 재정의 대부분이 어항 기능 회복을 위한 준설에 투입되는 악순환(매물 현상이 심하여 준설 시행후 매물이 급격히 진행되어 재차 준설 시행이 요구)으로 항만 및 해안 전문 기관 및 인력에 의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 기타

한·난류의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

변화 및 수산물 어획 감소 등으로 인한 어가 소득의 감소, 어촌의 전출 인구 증가 및 노령화 등으로 어항 이용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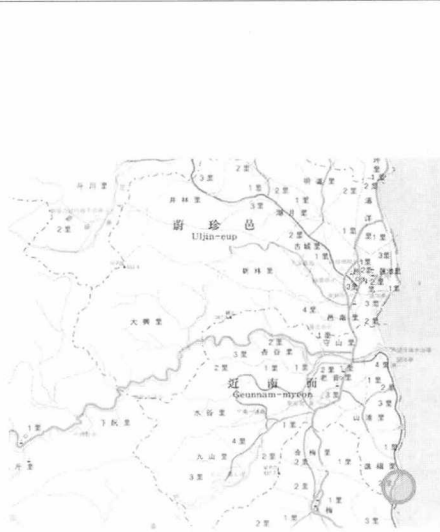
어촌·어항의 주민 소득원 창출이 조업에 의한 어업 활동 위주에서 기르는 어업, 어촌·어항 관광 기능 특화 및 조성 등으로의 변화에 실속한 대응책 마련이 미비하다.

3. 최근의 울진군 관내 어촌·어항 개발
실적 사례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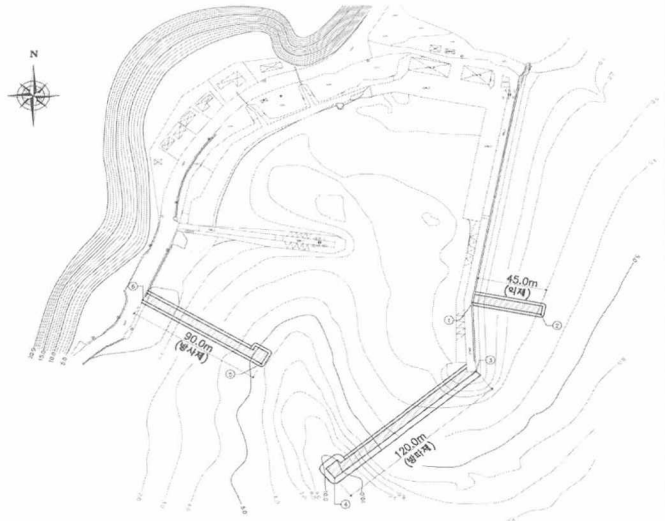
2003년 ~ 2005년간 약 8억원의 예산으로 항만 및 해안 전문가에 의한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토대로 개발 우선순위별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집중 개발로 조기 완공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발 효율성이 낮은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기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해안 지형 변화(특히 매물현상)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파제 시설은 제한하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울진군 관내 어촌정주어항인 동정항의 정비 및 개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정항 위치도 (울진군 근남면 진북2리)



동정항 계획평면도

동정항은 관내 어촌정주어항 중 입지 조건이 가장 양호한 어항으로 해안 도로와 연계하여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어항이나 항내 매물 연상이 심한 어항이었다.

이의 대책으로 2003년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동정항 기본계획 및 실시시설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방파제를 축소한 결과 항내 매물이 해소되어 어항 시설이용성 개선으로 어업소득 증대와 어선 및 어민 안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투입되는 준설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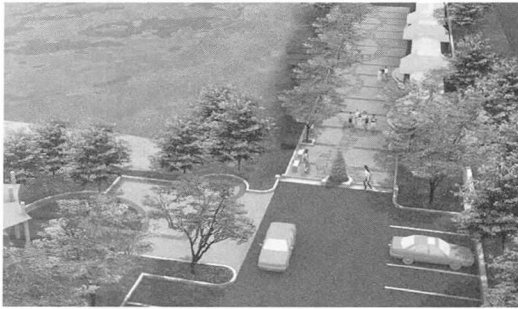
4. 향후 개선 방향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라 관내 어촌 어항의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어항 주변에 소공원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쉼터 제공 및 가로등 시설 등 쾌적한 환경 조성, 공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제공, 낚시터 개발 등으로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는 적극적 개발 방향을 지향한다.

관내 어촌정주어항 소공원 조성 계획 사례



거일항 조감도



지경향 조감도

이와 더불어 향후 어촌·어항 개발 방향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된 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첫째, 관광 어항으로서의 기능 구성과 부족한 예산 충원을 위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어항 및 해양 개발 등 관련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예산활용을 극대화 하고,

둘째, 어항별 입지 여건과 이용 실태, 효율성 등을 항만 및 해안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항 별, 기능별 특화에 의한 개발을 시행하고,

셋째, 울진군이 지향하는 친환경 농업 등을 고려한 환경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설물 배치와 자연 친화적인 구조 및 공법 도입

등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며,

넷째, 주 이용자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협조 등 의식 전환을 통하여 방문객에 대한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 어촌·어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5. 맺음말

비야흐로 이제는 해양관광 시대가 도래 되었으며, 어항의 기능적 역할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역할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업기능 위주의 어항에서 어업과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지만, 빈약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열린 사고와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 우리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신뢰를 쌓아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광어항의 지름길이며, 복지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